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 일제에 의해 이축 및 반출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가치 인식

### Perceptions of the Value of Korean Architecture Relocated and Remov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기 수 연\*

Kee, Suye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 forcibly relocated and removed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perceived and treated. Applying Alois Riegl's "classification of value of monuments"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ategories: historical value, use value, and artistic value. The findings reveal that although Japan recognized the historical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these buildings, they were often reduced to mere economic assets or repurposed as symbols of political power, thereby distorting their original meanings. The case of Heungwhamun Gate from Gyeongju Palace, reused as the main gate of Parkmunsa Temple, exemplifies the concept of *spolia*, while the partial removal of architectural elements from Seokguram and Bulguksa represents *Elginism*, a form of imperial cultural plunder. By highlighting the disparity in value recogni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ongoing challenges in the restitution and restoration of displaced architectural heritage.

키워드 : 일제강점기, 건축유산, 이축, 반출

Key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architectural heritage, relocation, spolia, Elginism, Alois Riegl, value of monum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건축 중, 1995년 자선당(資善堂)의 유구가 한국으로 반환된 것에 이어 2025년 6월에는 관월당(觀月堂)이 해체되어 무사히 반환되었다. 과거 일본은 조선의 궁궐과 왕실이 소유한 수많은 건축과 기타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던 건축유산들을 해체하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불하했고 그 중 일부는 자국으로 반출했다. 해당 건축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건축유산으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 측의 태도는 달랐을 것이다. 다만 이 건축들을 매각, 불하의 대상으로 삼았던 걸로 보아 재화(財貨)로서의 물질적 가치는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축 및 반출된 우리나라의 건축이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취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대상은 일본에 의해 이축 및 반출된 우리나라 건축들이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총 수량과 세부 정보(건축의

이름, 이축 및 반출 과정, 현재의 모습 등)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세부 정보가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져 있는 사례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분석은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 1903)의 「기념물 가치체계(classification of value of monuments)」 중 하인즈 호라트(Heinz Horat)에 의해 정리된 가치체계(과거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념물의 가치체계)(그림1)를 참고로 하여 '과거의 가치(values of the past)', 현재적 가치(values of the present) 중 '사용의 가치(use value)', 현재적 가치 중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를 기준으로 삼는다(Riegl. & Choi,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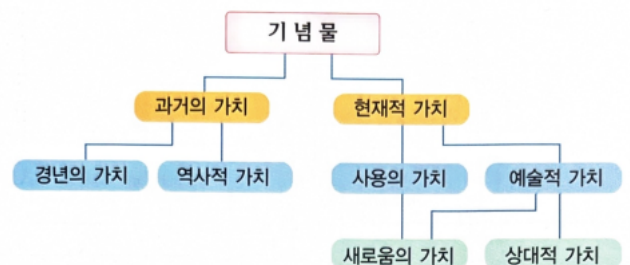


그림1. 하인즈 호라트(Heinz Horat)에 의한 알로이스 리글의 기념물의 가치체계 (과거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념물의 가치체계) (출처: 참고문헌 3)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keesehwang@snu.ac.kr)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RS-2023-0024270520982084730002

전체 연구의 대상 중 이 세 가지 가치를 인정받은 건축 사례를 각각 찾아내고 배경을 알아본다.

## 2. 일제에 의해 이축 및 반출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가치 인식 유형별 사례

### 2.1 과거의 가치

과거의 가치는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와 경년의 가치(age Value)로 나누어 진다. 역사적 가치는 기념물이 과거의 사건, 인물,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 가치는 의도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반면 경년의 가치는 오직 시간이 흐르면서 비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가치이다. 이는 기념물 자체가 겪은 물리적인 변화, 즉 낡음, 마모, 부식 등에서 오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 분량의 제한 상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의 가치로 통합하여 취급한다. 과거의 가치를 가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1.(1) 경희궁 흥화문 매각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한 우리나라의 고건축 및 고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는 『조선고건축물』(1926)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sup>1)</sup>(1933)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가 집필한 『조선예술의 연구(朝鮮藝術之研究)』,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등에 실린 건축들의 목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경희궁 흥화문은 『조선고건축물』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32년 매각된 흥화문은 박문사(博文寺)의 산문(山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박문사는 몇 차례 전용되었고 그 때마다 흥화문은 정문 역할을 하였다. 1988년 국가로 반환되었고 원위치로 복원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경희궁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다.

#### 2.1.(2) 경복궁 선원전 매각

경희궁 흥화문의 사례와 유사하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실려있는 건축 중 하나이다. 1932년 박문사로 이축되었으나 현재는 소재를 알 수 없다.

#### 2.1.(3) 경복궁 용문당과 용무당 매각

일본에서 전파되어온 용광사(龍光寺)는 1928년 경복궁 용문당과 용무당을 불하받았다. 이 때 조선총독부에서는 “동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전해져 (Park, 2007) 해당 건축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서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후 이 두 전각은 용광사의 법당과 객전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 또 한 번 더 매각되어 현재에는 원불교의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 2.1.(4) 석굴암과 불국사의 부분적 반출

한편 건축물 단위가 아닌 건축의 일부분만을 일본으로 반출해간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석굴암과 불국사이다. 1907년 발견된 석굴암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불국사 역시 고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석굴암은 1909년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1849~1910) 총독의 명령에 따라 전체가 해체, 서울로 이축될 뻔 하였다. 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석굴암 본존불 바로 뒤의 11면 관음상 부조 앞에 안치돼있던 대리석 5층소탑과 석굴암 내에 안치된 작은 불상 2점과 불국사 다보탑 사자 3구 등이 일본에 의해 약탈,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불국사의 경우 다보탑의 돌사자상 4개 중 3개, 대웅전 뒤에 있던 석조사리탑 등이 약탈, 반출되었다. 이 중 석조사리탑은 와카모토 제약회사 사장이던 나가오 긴야(長尾欽彌)의 소유였다가 1934년 조선총독부로 반환되었다<sup>3)</sup>. 이 석조사리탑은 현재 보물 6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부조 및 조각상을 분리해서 반출시킨 Elgin Marbles 사건<sup>4)</sup>과 유사하다. 오늘날 Elginism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자주 일어났던 문화유산 약탈의 케이스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건축의 부분적 반출은 전체 건축의 완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훼손 행위이기도 하다.

### 2.2 사용의 가치

앞서도 말했듯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궁궐과 왕실이 소유한 수많은 건축이 민간에 매각되었다. 지정 불하된 경우도 있었고 경매에 부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2와 그림3은 당시 신문에 실린 궁궐 전각의 경매 관련 기사이다. 이처럼 여러 방식으로 매각된 전각들은 적어도 사용의 가치가 인정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되는 주요 사례로 앞서 소개한 전각들에 더불어 경복궁의 자선당, 비현각, 흥문관, 경희궁의 숭정전, 회상전, 흥정당, 황학정 등이 있다. 한편 경희궁 흥화문은 매각, 이축 후 박문사(博文寺)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는데, 박문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서울 중구 장충단공원 동쪽에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었다. 박문사라는 이름은 이토의 일본식 이름 ‘이등박문(伊藤博文)’에서 따온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성이 강한 식민지 추모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궁궐의 정문이었던 흥화문을 조선왕조를 무너뜨린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건축의 일부로 재사용한 것은 spolia<sup>5)</sup>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의 단순한 이축

2)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508251708041>

3) 경향신문. 상동

4) 1801년부터 1812년까지 엘긴(Lord Elgin) 백작은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의 허가를 받아 파르테논 신전의 중요한 조각상들을 대량으로 가져갔다. 그는 조각상들이 방치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제국의 약탈과 문화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Elgin Marbles는 이후 영국 박물관에 팔려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5) spolia는 라틴어 spolium(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현대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spoil인데 spolia는 이와 달리 spoil을 재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4833#0000>

과 전용(轉用)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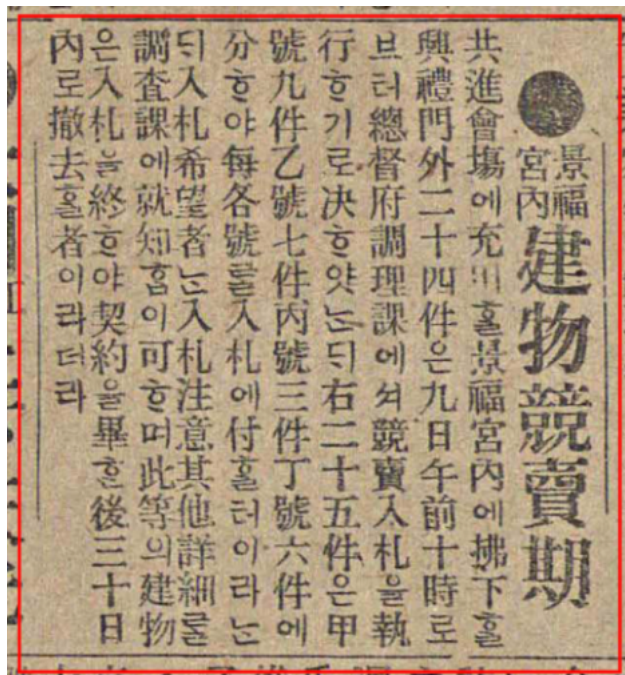


그림2. 매일신보 1914년 7월 7일자, 「경복궁 내 건물 경매기」



그림3. 매일신보 1914년 7월 10일자, 「구 건물 경매 호적」

사용하는 행위에 더불어 재사용된 spoil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하거나 전용(appropriation)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주로 정치적, 이념적,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며 대표적인 예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들 수 있다. 즉 과거의 유물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거나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시 및 가치를 추가하여 상징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띄는 경우이다.

## 2.3 예술적 가치

이축 및 반출의 대상이 조선의 궁궐과 왕실이 소유한 수많은 건축, 그리고 기타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던 건축유산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모두 예술적 가치가 충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예술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나마 풍경궁의 정문이었던 황건문의 예술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황건문이 철거되지 않고 이축 후 재사용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름다움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Park, 2007).

## 3. 결론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축 및 반출된 우리나라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취급되었는지를 알로이스 리글의 「기념물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그 건축들이 가진 과거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러 건축유산을 단순히 경제적 자산으로만 취급하여 그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 했던 것이다.

한편 경희궁 흥화문이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박문사의 정문으로 사용된 사례는 단순한 이축이나 부재(部材)의 재사용이 아닌 spolia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본래의 역사성과 의미를 왜곡시켜 지배 권력의 상징물로 이용한 것이다.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건축의 일부분만을 분리, 반출한 사례는 Elginism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문화약탈로 Elgin Marbles 사건과 유사하게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전리품이나 수집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더불어 부분적 반출은 건축 유산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본래의 맥락을 단절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의 건축을 강제로 인수, 매각하여 이축 및 반출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가치 인식의 차이에 대해 조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최근 해체되어 반환된 관월당은 그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복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분야의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참고문헌

1. Hitchens, C., Browning, R., Bouras, C., & Gordimer, N. (1997). The Parthenon Marbles: The Case for Reunion. Verso.
2. Park, S. (2007). The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Joseon Dynasty Palace Architec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6) 「曹溪寺의山門」(Park, 2007)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3. Riegl, A. & Choi, B. (2013).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Its Origins and Characteristics / Alois Riegl; Translated by Choi Byeong-ha. Gimundang.
4. Riegl, A. (1903). Der moderne Denkmalkultus, sein Wesen und seine Entstehung. Wilhelm Braumüller Universitäts-Verlagsbuchhandlung.